열반은 한 맛이며 평등한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⑰ 무명주지

"만일 일체의 고(苦)를 알고, 일체의 집(集)을 끊고, 일체의 멸(滅)을 증득하고, 일체의 도(道)를 닦았으면, 덧없이 부서지는 세간과 덧없이 병드는 세간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인 상주열반(常住涅槃)을 얻을 것이며, 보호해 줄 이가 없는 세간과 의지할 데가 없는 세간에서 보호해 줄 이가 되고 의지할 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열반을 얻고, 지혜가 평등하므로 열반을 얻고, 해탈이 평등하므로 열반을 얻고, 청정함이 평등하므로 열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이란 한 맛이며 평등한 맛이라 하니, 해탈의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이는 일미평등한 밝은 해탈의 맛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이는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하였고 끝내지 못하였으니, 갠지스강 모래알 수보다 많은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법과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였고, 마땅히 증득하여야 할 것을 증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주지가 쌓여서 온갖 수도하는 지위에서 끊을 번뇌와 상번뇌(上煩惱)를 일으킵니다. 마음을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지(止)를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관(觀)을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선(禪)을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정수(正受)를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방편(方便)을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지혜를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과위(果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얻음(得)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힘(力)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무외(無畏)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상번뇌는 여래의 보리 지혜로만 끊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온갖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여 세워진 것이며, 온갖 상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무명주지로 인한 것이며, 무명주지를 반연한 것입니다."

일체의 번뇌가 모두 무명주지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수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도 무명주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번뇌(上煩惱)란 무엇을 하는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라는 뜻인데 근본번뇌인 10대혹(十大惑) 곧 오둔사(五鈍使)와 오리사(五利使)가 지말번뇌로 일어나면서 강성해지는 것을 말한다. 구역에서는 수번뇌(隨煩惱)라고 말했다. 〈승만보굴〉에서는 삼계 수혹(修惑)인 사주지무명(四住地無明)에 의해 일어나는 거칠고 강성한 것을 상(上)이라 한다 하였다. 또 〈기신론〉에서는 "진여는 본래 하나지만 한량없고 끝없는 무명은 본래부터 차별되어 두텁고 엷은 것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갠지스강 모래알 수보다 많은 상번뇌가 무명에 의하여 차별을 일으킨다."하였다.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근본무명(根本無明)에서 지말무명(枝末無明)이 파생되는데 생사의 근본 원인이 이 무명주지에 의해서 있게 된다. 무명이란 어두운 번뇌의 마음에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뜻하는 말로 쓰이면서 동시에 무지(無知)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번뇌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 무명주지이므로 〈승만경〉에서는 이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강조하여 오직 부처님의 지혜로서만 끊을 수 있다 하였다.

성문(聲聞)들은 고(苦), 집(集), 멸(滅), 도(道), 사제(四諦)를 닦으면서 삼계의 번뇌를 끊어가는 것을 수행의 과정으로 여긴다. 그래서 번뇌를 끊는 것이 수행의 중심이 되어 아공(我空)을 증득하여 해탈을 얻는다고 한다. 이러한 수행관을 대승에서는 탈피,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번뇌가 보리를 장애하는 데는 아집에 의하여 일어난 번뇌가 번뇌장(煩惱障)이 되고 법집에 의하여 일어난 번뇌가 소지장(所知障)이 되는데 이 두 장애를 없애려면 아집 법집의 집착을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대승에 와서는 번뇌를 끊는다는 말을 집착을 끊는다는 말로 바꾸어 말한다. 그리고 성문의 번뇌 끊은 경지를 아공(我空)만 증득했을 뿐 아직 법공(法空)을 증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음신행의 목표는 성불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㊵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관음신행은 수행자의 보살도 완성과 성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음신행의 염불수행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성불의 과정인 것입니다.

초기불교에서는 구호(救護)나 가피 위주로 관음신행이 이루어졌지만 대승불교로 발전되면서 관음신행의 염불수행은 더욱 발전하여 성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심을 바탕으로 한 중생구제의 수승한 대승보살도 수행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음신앙의 염불수행은 염불을 통해 자성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항시 마음을 외부 경계에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염불수행을 통해 외부 경계에 빼앗긴 산란한 마음을 끊고 안으로 되돌려 가라앉혀서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염불수행은 유가행의 지관수행과 함께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된 것입니다.

염불수행의 목적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불교의 염불수행의 목적은 현세이익과 내세에서의 정토왕생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로 오면서 염불 수행의 목적은 변화되어 자성을 깨달아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을 통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처럼 변화시켜서 성불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에 두고 염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고 결국에는 운명이 바뀌어 중생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무자성(無自性) 공성(空性)이기 때문에, 선을 생각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불 수행하는 마음에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며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가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염(念)하면, 현세에서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얻고, 내생에는 윤회하는 고통에서 빠져나와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정토에 왕생한 후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수행의 이익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는 염불이 무엇인지, 염불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염불 수행을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염불(念佛)이란 한마디로 '자각각타 각행원만' 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불에서의 '염(念)' 이란 의미는 '억념(憶念)', '작의(作意)' 등의 의식작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환언하면 마음이 향하는 객관의 대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식적 작용이 염(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에서의 '염(念)' 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과 대비심을 항상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의식적 작용이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念)' 이란 단어 속에는 관념(觀念), 심념(心念), 사념(思念), 억념(憶念), 칭념(稱念) 등이란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⑰ 사자후에 대한 큰 경 ③

언어에는 是非心이 없다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싸리뿟다여, 예를 들어 계율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수행승은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앎을 성취한다. 그 결과에 대해 이와 같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고 나는 말한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버려질 수 없다. 만약 눈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눈이 볼 때, 그 보고 있는 것에 의식 작용이 생겨나면 안 된다. 의식 작용이 생기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정보를 얻어 의식에게 전달하고, 의식은 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얻은 결과가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의식조차도 알지 못한다. 눈은 전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른 곳에서 처리하도록 넘기지만 다른 기관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 그 기관들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 이렇게 도는 것에 대한 멈춤을 가진다. 부처님께서 팔만사천법문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알아야 하는 어떤 언어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교본은 전체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나의 조건으로 그 원리가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똑같이 따라함은, 똑같이 따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 위함임을 잊으면 안 된다.

언어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엄청난 괴로움에 휘말리게 된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우더라도 이 진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행복하다' 는 말 속에 옳음과 옳지 않음이 있는가? '불행하다' 는 말도 똑같다. '행복하다' 는 말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게 되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그것이 '옳다' 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이지 '행복하다, 불행하다' 라는 언어 속에 시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 속에 시비심(是非心)이 있다면 계율과 삼매와 지혜를 얻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렵다. 그러나 언어 속에 시비심이 없는 줄 알게 되면 계행을 갖추고, 언어 속에 시비심이 없는 줄 알게 되면 삼매를 갖추고, 언어 속에 시비심이 없는 줄 알게 되면 지혜를 갖추게 된다. 그러한 갖춤이 생겨나면 언어로 탐을 내지 않고, 언어로 화를 내지 않고, 언어로 어리석음을 내지 않으니, 마음속에 대상이 생겨날 수 없고, 대상이 생겨나지 않으면 견해가 생겨날 수 없다.

마음이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나의 마음' 과 '너의 마음' 이라고 할 때, 그 때의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 마음이 아니라 견해다. 견해 이전에는 언어에 대한 자신만의 시비심일 것이며, 언어 이전에는 나라는 상(像)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늘 '마음, 마음' 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견해에 대한 지옥을 겪는 것이 전부다.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있는 언어와 견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통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린다' 는 언어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버린다는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버린다는 것은 미끼이다. 미끼를 물으려고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이 자를 알게 되면 무엇을 버리는 줄 알지만, 자신이 미끼를 물게 되면 바늘에 의에 고통스러워진다. 진정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미끼를 요리조리 분석하여 결론을 내려하는 그 자의 면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찰라 지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져, 다른 곳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면 맛을 보았지만 정확한 맛을 모르게 되니 참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 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원로원장 설봉 성인(대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인륜 보현(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